성장 과정

저는 50대에 접어들며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의 경험과 배움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잡았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30년 가까이 다양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성실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후배 양성과 조직 관리에도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었고, 이는 사회복지사로서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과 주변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인생 후반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된 일을 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지원 동기

저는 사회복지사를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삶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대인관계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시기이기에, 제 연륜과 신뢰감을 복지 현장에서 발휘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청과 공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관련 경험 및 경력

퇴직 후,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경로식당 지원, 어르신 말벗 서비스, 행사 진행 보조 등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업을 병행하며, 노인복지관에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례관리, 프로그램 기획, 자원봉사자 관리 등 실무 경험을 익혔고, 행정 문서 작성과 기록 관리 능력도 향상시켰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쌓은 조직 운영 및 대인관계 관리 능력은 사회복지 기관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저의 강점은 끈기와 책임감, 그리고 깊이 있는 공감 능력입니다.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완수하는 성격이며,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까지 챙기려다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때가 있으나, 최근에는 효율적인 업무 분배와 시간 관리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포부

입사 후에는 기관의 운영 방침과 대상자의 욕구를 빠르게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저의 연륜과 대인관계 경험을 살려 상담·교육·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관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